

한국지엠 군산공장 정상화 위해 총력

군산시, 비상대책반 구성 문제점·대응책 마련 나서... 범도민 서명운동·릴레이시위 등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군산시의 총력전이 펼쳐진다.

지난 13일 충격적인 한국지엠 군산공장폐쇄 발표 직후 전북도와 비상대책회의를 가진 군산시는 즉각 부시장을 단장으로 4개반으로 한국지엠 군산공장 대응 T/F 팀을 구성하고 공장폐쇄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군산시는 1,2차 134개 지역협력업체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해 피해상황과 요구사항 파악에 집중하는 한편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설 명절 부시장이 총괄하는 비상근무와 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하는 비상대책반도 운영한다.

비상대책반 구성을 끝낸 군산시는 빠른 시일 안에 한국지엠 군산공장 정상화를 촉구하는 총력전을 펼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며 산자부와 총리실은 물론 청와대와 기재부 고용노동부를 방문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군산시는 전북도 및 정치권과 함께 청와대 방문을 통해 지난



군산시는 지난 13일 한국지엠 군산공장폐쇄 발표 직후 전북도와 비상대책회의를 가졌다.

해 현대중공업 군산공장의 가동 중단 이후 재가동을 위한 정부의 조치사항이 무엇인지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지원책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따질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천 부평에 있는 한국지엠 본

사를 방문하여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한국지엠 본사와 국회, 청와대 등에서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대응 T/F 팀 단장인 한준수 부시장은 "현대중공업 가

동중단에 이어 한국지엠의 군산공장의 폐쇄결정은 그동안 지엄을 응원해 온 군산시민에게 오히려 비수를 찌는 처사"라며 "군산경제를 살리기 위해 서러면 어떤 방법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김판근기자

원광대, 유·중등교사 임용시험 80명 최종합격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가 2018년도 유·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80명이 최종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광대는 2014년 68명, 2015년 82명, 2016년 90명, 2017년 61명 등 최근 5년간 381명이 임용시험에 합격해 강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도 전북 42명, 광주·전남 18명, 서울·경기 10명, 충청권 10명 등 전국에서 고르게 합격자를 배출했다.

학과별 합격자는 체육교육과 18명, 유아교육과 17명, 식품영양학과(영양교사) 12명, 역사교육과 10명, 중등특수교육과 9명, 국어교육과 4명, 가정교육과 3명, 교육학과 3명, 영어교육과 2명, 일어교육과 1명, 일반교육 1명 등이다.

특히 체육교육과의 경우 2016년 26명, 2017년 13명, 2018년 18명을 배출하면서 전국 사범대학 중 세 번째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광대는 교과 외 수업과 방학 중 1, 2차 임용특강, 실전 모의고사, 전북교육청 예비교사 아카데미 프로그램, 연중 임용고시 및 영상의습실 운영을 비롯해 지도교수와 도내 중등학교의 우수한 현직교사가 함께하는 수업지도안작성, 수업 실연 심층지도, 전문가 초청 교직적성 심층면접 준비 등 임용시험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최근 5년 사이 합격자 수가 대폭 증가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보건소

전통시장 상인 대상 정기적 이동건강검진 실시

군산시 보건소가 만성질환에 시달리며 일하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소는 군산시 전통시장 5개소(공설시장, 명산시장, 신영시장, 역전종합시장, 주공시장)에 출장하여 7,600여명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정기적으로 이동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이번 이동검진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상담과 혈압,혈당 등 검진, 잇몸질환 예방과 틀니관리 방법 등 구강관리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형태 보건소장은 "여건이 허락하는 한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상인들에게 건강한 삶을 위한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도시를 구현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근기자

익산시, 저출산 극복 시민 의견 시정에 반영

출산장려 시책 설문조사 진행...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앞장

익산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시민 의견을 시정에 반영한다.

19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민 1564명이 참여하는 출산장려 시책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출산장려 시책에 대한 시민의견을 반영해 보다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실시됐다.

주요 항목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2018년 추진한 사업에 대해 알게 된 경로를 묻는 질문에 언론보도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됐다는 응답이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도 78%의 응답자가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석도시 익산의 이미지에 맞는 첫째아 출산 축하용품(14K 미아반지용 팔찌)에 대해서는 92% 이상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경제적 요인 48%, 일·가정 양립 34%를 차지했으며 가장 도움이 되는 지원책으로는 보육지원 47%, 출산지원 23%를 꼽았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민 의견란에는 양육시설 확대와 교육비 지원, 경제적 지원, 근무환경 개선, 다자녀 혜택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시는 이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2018년에는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존 사업을 강화한다.

또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남녀 육아휴직제 보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 지역 기업들이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체를 방문해 가사·양육에 부모가 함께할 수 있도록 캠페인

을 진행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화를 위한 '가족사랑의 날(매주 셋째주 수요일 정시퇴근의 날)'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운영해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부모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야간·휴일(토요일) 시간제 보육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보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집 숲 인증제, 장난감대여 서비스, 토요문화학교 등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해 보육지원 사업을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보육·양육지원책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담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 종합계획을 수립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익산 만들기 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나영은 전북농기원 국장 '마르퀴즈 후즈 후' 등재

전북도농업기술원은 나영은 연구개발국 국장이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 인 더 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8년 판에 등재가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나영은 국장은 또 마르퀴즈 후즈 후가 각 분야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인물로 선정돼 수상하는 '2018년 알버트 넬슨 마르퀴즈 평생공로상(2018 Albert Nelson Marquis Lifetime Achievement Award)' 수상자로도 선정됐다.

나 국장은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로서 농업분야 기후변화 R&D 중장기 계획 수립, 농업생태계 적응 및 취약성 평가 등 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 변화 연구 등 다수의 논문을 게재해 국제사회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채택됐다.

/익산=장양원기자

극단 작은소리와동작·글바치

익산시립도서관에 100만원 상당 도서 기증

익산시는 극단 작은소리와동작·글바치가 익산시립도서관에 100만원 상당의 큰글씨 도서를 기증했다고 19일 밝혔다.

극단 작은소리와동작은 지난 1995년 창단된 익산 유일의 극단이다. 이 극단은 무대공연 불모지 익산을 지켜온 문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글바치는 글쓰기를 취미로 하는 익산 청년들의 모임으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도서기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증대상도서는 지난 2008년 이후에 출판돼 상태가 양호하고 활용가치가 있는 자료인 편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농업기술센터, 보리생육 재배관리 현장지도 나서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최근 기상과 보리 생육상황을 분석한 결과 보리 생육재생기를 이달 17일로 판단하고 웃거름 및 제초제 적기 적정량 사용 등 재배관리 요령에 대한 현장지도에 나섰다.

생육재생기란 보리가 겨울철에 생장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있다가 늦겨울과 이른 봄 사이 기온상승과 함께 다시 생육을 시작하는 시기로 봄철 웃거름 주는 때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보리 웃거름은 생육재생기 판단일부터 10일 이내 요소비료를 10a(1,000㎡) 당 10kg을 사용해도 되지만 15일 간격

으로 5kg을 나누어 살포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습기가 많은 논은 비료유실이 크므로 배수가 된 상태에서 비료를 주는 것이 좋다. 또한 생육이 부진하거나 철새피해를 입은 포장은 피해구역을 중심으로 50%정도 더 사용하며 3회 정도 시비하는 것이 좋으며 생육상황에 따라서 비료량을 증감해도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보리의 풍작은 생육재생기 재배관리에 달려있다"며 "웃거름 및 제초제 적기 사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기술지도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근기자

어린이 행복을 위한 행복도시 군산

동북아경제수심 명품도시 군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군산시 Dream Hub GUNSAN